“전력 인프라가 곧 국가 경쟁력…핵심 기술 다 모였다”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 가보니

국내외 198개社 참가…내일까지 열려
“최신 기술·제품 한 곳서…매년 찾아”
효성중공업·LS전선 등 핵심 기술 선봬
46개 전문 세션 진행·스타트업 타운도

“전력 인프라가 곧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미래 에너지를 선도할 핵심 기술이 바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6·빅스포)’ 개막식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빅스포가 열리는 전시장에는 차세대 전력 기술을 직접 확인하려는 국내외 바이어와 전력 산업의 최신 기술과 미래 에너지 시장의 방향을 살펴보려는 관람객들로 전시장은 북적였다.

‘혁신과 가능성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올해 빅스포에는 국내외 198개 에너지·전력 기업이 참가해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에너지 리더스 서밋’과 ‘KEPCO R&D 컨퍼런스’를 비롯한 46개 전문 세션도 전시장 곳곳에서 진행돼 에너지 산업의 현안과 기술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4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가능성의 만남(Tech Innovation meets Possibility)을 주제로 ‘BIXPO 2026’가 열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참석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살펴보고 있다. /조영권 기자

나주에서 전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장용영(45)씨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전력기업들의 다양한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매년 찾고 있다”며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행사”라고 전했다.

또 지역 나주공업고등학교 학생들도 단체로 전시장을 찾아 전력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둘러보고 미래 에너지 시장의 현주소를 직접 체험했다.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스타트업 타운’에서는 유망 기업과 투자사 간 만남이 이어졌다. 에너지·전력, 인공지능(AI), 친환경 소재, 스마트산업 등 4개 분야의 스타트업 100개사와 투자사 39곳이 참여해 1대1 투자 상담이 진행됐다. 스타트업들은 투자 유치와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는 자리였다.

국내 전력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초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경쟁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와 전력 당국이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의 핵심 기술이 전시 전면에 배치되면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효성중공업은 전압형 HVDC 기술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지난 9월 한국전력의 대용량 전압형 HVDC 국산화 및 실증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밸브와 제어기를 비롯해 핵심 시스템 실물을 전시하며 자체 기술력을 강조했다. 국내 HVDC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와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다.

LS전선과 자회사 LS마린솔루션은 통합 전시관을 통해 해저·지중 HVDC 케이블 사업 역량을 선보였다.

제품 설계와 제조부터 해저 포설,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일괄 수행 역량을 내세웠다. 전시관 중앙에는 국내 최초로 공인 시험을 통과한 525kV급 초고압 HVDC 해저케이블 실물과 신규 케이블 포설선 모형을 배치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번 전시는 전력망 확충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과 사업 역량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서 만난 전력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첨단 AI 산업 확대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시점”이라며 “올해 빅스포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췄는지 보여주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BIXPO 2026은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첨단 전력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오는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어진다. /안태호 기자

호남권 경기 소폭 개선…제조업 ↑·건설업 ↓

한은 광주전남·전북·목포본부 경제동향 모니터링

석유화학·철강·반도체 등 상승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도 ↑
민간 건설업 공사비 부담 탓 ↓

호남권 경기가 2/4분기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목포본부는 4일 지역 내 업체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와 조선은 줄었지만, 석유화학과 석유정제, 철강 및 반도체 등은 늘어났다.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SUV를 중심으로 국내외 견조한 수요가 이어졌으나 전기차 보조금 소진과 명절 및 파업 등의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했다.

조선은 양호한 수주 물량 호남권 주요 대형 조선업체의 2026년 3/4분기말 수주잔량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조선은 양호한 수주 물량 과 생산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전분기 생산의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은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의 생산 시설 정기보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운영 기조가 이어지며 가동률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도체는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요가 예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늘어났다.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늘어난 반면 부동산업은 줄어들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추석 명절 효과와 정부 소비지원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증가했다. 부동산업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확정에 따라 매수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공공부문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등의 주요 SOC 예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집행되면서 소폭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은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미분양 주택 감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높은 공사비와 원리금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박선옥 기자

GICON, AI 실증·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GIST와 ‘올 인 원 HUB 조성사업’ 추진

인공지능 전환·국제협력·투자 유치 등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인공지능(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역 기업의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 조성에 나선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산업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국제 협력, 투자 유치 및 사업화, 기반 시설 활용 등을 연계하는 ‘ALL IN ONE HUB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AI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의 기술 실증을 확대하고 해외 협력 기반을 강화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GICON이 주관기관을 맡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참여한다.

2027년 4월까지 총 16억원을 투입해 핵심 인재와 기술, 기반 시설을 연계한 광주·전남 인공지능 통합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하나!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둘!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셋!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곤란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